

제주학연구 8

제주어 표기법

2013. 12.

제주학연구 8

제주어 표기법

2013. 12.

발 간 사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또한 국어의 옛 모습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언어 자료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주어가 이제는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탓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주어를 보전하고자 하는 도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은 지속되었고, 제주어를 문자로 표기하려는 사람들로부터는 표기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위와 같은 필요성 제기에 공감한 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표기법은 문자로써 언어를 표기하는 원리와 방법입니다. 이제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함으로써 제주어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표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어 표기법이 제주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제주어 사용과 보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상표명, 상호명, 광고 등에 활용되어 제주어의 경제적 가치도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위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제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음성과 문자로 활발히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주어 표기법 제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 영 민

제주어 표기법 제정 경위

-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을 2012년 개최된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검토·확인함.
- 학계 전문가 7인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제정 작업을 진행함.
 - 연구 기간 : 2013년 1월~12월
 - 제정 원칙
 - 한 국가의 언어를 구성하는 변이체로서 제주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함.
 - ‘배제’와 ‘선택’을 지양하여 제주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킴.
- 연구 진행의 첫 단계로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어 표기법의 체재, 내용 등을 결정하고 작성 분야를 분담함.
- 연구진별로 작성한 원고를 취합하여 전 연구진의 검토를 마친 후, 회의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의견 교환 및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초안을 완성함.
- 학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그 체재와 내용을 수정·보완함.
- 제주어 표기법의 체재와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3년 12월 도민설명회를 개최함.
- 도민설명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검토, 반영한 수정안을 제주어 보전육성위원회에 보고하고,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함.

일 러 두 기

1. 제주어 표기법은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원리에 따라 제주어로 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어의 적극적 사용과 보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제정 목적을 둠.
2. 제주어 표기법을 구성하는 용어 중 ‘제주어’는 ‘제주말’, ‘제주방언’ 등과 동일한 의미로, ‘표기법’은 ‘표기 방법’, ‘표기 지침’의 의미로 사용함.
3. 여기에 사용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1) 한자, 한자어 표시에 사용하는 부호
 - () (소괄호)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같을 때 씀.
<예> 시(市)
 - [] (대괄호)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다를 때 씀.
<예> 삼촌[三寸]
 - (2) 그 밖의 부호
 - / / (양쪽 빗금) 음소 표시에 씀.
 - ‘ ’ (작은따옴표) 형태 표시에 씀.
 - (붙임표) 접사나 어미 등 의존형태소를 나타낼 때 씀.
<예> -음, -을디
 - ~ (물결표) 소괄호 밖의 요소와 결합될 수 있는 형태소 및 형태소의 결합형을 표시할 때 씀.
<예> 나쁘(~다), 좁자(~하다)
 - / (빗금) 지역적·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나 그 밖에 대응되는 것을 나란히 적을 때 씀.
<예> 엇치냐/엇츄냐

차 례

제1장 총 칙	9
제 1 항 목적	9
제 2 항 원리 및 방법	9
제 3 항 범위	9
제 4 항 자모	9
제 5 항 합자	10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10
제 6 항 된소리	10
제 7 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11
제 8 항 속음	11
제 9 항 파생어	12
제10항 체언과 조사	13
제11항 어간과 어미	13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14
제12항 두음법칙	14
제13항 합성어	14
제14항 파생어	15
제15항 체언과 조사	15

제16항 어간과 어미	16
제17항 준말	16
제4장 굳어진 표기	18
제18항 /ㄷ/ 끝소리	18
제19항 한자 형태소	18
제20항 합성어	18
부 칙	20

제주어 표기법

제1장 총 칙

제1항 목 적

제주어 표기법(이하 표기법)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기법은 형태소의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바뀐 꼴(변이형)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제3항 범 위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제4항 자 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들이 일치하도록 하여 제주어를 적는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ㅐ	ㅓ	ㅖ	ㅙ	ㅓ	ㅛ	ㅜ	ㅠ	ㅝ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	ㅞ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ㅇ, ㆁ’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제5항 합 자

1. 자음은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은 중성 글자로 적는다.
 2. 제주어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 받침 글자를 모아서 적는다.
-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6항 된소리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ㄱ, ㄷ, ㅃ, ㅆ, ㅈ’으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스끼	어따/아따	나쁘(~다)	마썸/마썹/마씨
주짜/조짜/쭈짜/쪼짜			

2.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빈찍/핀찍	술짜	늪빼	덩쌩쌩
-------	----	----	-----

다만, 하나의 어미 안에서 /ㄹ/ 뒤에 오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을디 -을수룩/-을수룩 -을지

[불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ㄱ, ㅂ/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녹대 역블로 덕석 낙지
 접테기 눅새 납작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꽃꽃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굵굵하다/꺾꺾하다 눅눅하다 닥닥 밋밋
 식식 족족 독닥불미/뚝뚝불미

제8항 속 음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위치와 관계없이 본음에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곡식/곡속[穀食] 공치새[功致辭] 켄당[眷黨] 농시[農事]
 당취[當初] 동세[同壻] 모냥[模樣] 면장[面長]
 포[褌] 병/펍[瓶] 삼촌[三寸] 손지[孫子]
 웬수[怨讐] 즈석/즈속[子息] 즈네[潛女]

제9항 파생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와 어근을 밝혀 적는다.

홀아방	홀어멍	햇아방	햇어멍
할아버지/할아버지	할애비		

2. ‘-이’나 ‘-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는다.

다듬이	엇이/웃이	굳이	
끗들이	살렘살이	절룩발이	늑직이
빙색이/빙삭이	높이다	쌍이다	
돌음박질	좁음		
돋구다	벧기다	울리다	짚숙(~ㅎ다)
좁작(~ㅎ다)	앗지다	높직(~이)	늦추다
받후다	굳히다		

[붙임]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귀마구리	꼬락사니	스래기	스타귀/사타귀
이파리	지동/지둥	지붕	

다만, ‘ㄹ’로 끝나는 어근에 접미사 ‘-ㅁ’이 붙어서 파생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ㄹ뭍	구뭍/그뭍	수늪	즈늪
----	-------	----	----

제 10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본디 꼴을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독[鷄]	: 독이	독을	독도	독만
논[畚]	: 논이	논을	논도	논만
말[馬]	: 말이	말을	말도	말만
놈[他人]	: 놈이	놈을	놈도	놈만
으뜸[八]	: 으뜸이	으뜸을	으뜸도	으뜸만
꽃[花]	: 꽃이	꽃을	꽃도	꽃만
고장[花]	: 고장이	고장을	고장도	고장만
자리[蓆]	: 자리가	자리를/자릴	자리도	자리만

제 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뉘다[釣]	: 뉘안	뉘으민	뉘으곡	뉘나	뉘는
넘다[越]	: 넘언	넘으민	넘곡	넘나	넘는
막다[障]	: 막안	막으민	막곡	막나	막는
묻다[埋]	: 묻언	묻으민	묻곡	묻나	묻는
살다[生]	: 살안	살민	살곡		사는
안다[抱]	: 안안	안으민	안곡	안나	안는
잇다[連]	: 잇언	잇으민	잇곡	잇나	잇는
잡다[把]	: 잡안	잡으민	잡곡	잡나	잡는

좏다[從] : 좏안 좏으민/좏이민 좏으곡/좏이곡 좏나 좏는
 좏다[索] : 좏안 좏으민/좏이민 좏곡 좏나 좏는

제3장 바뀐 꼰을 적는 것

제 12항 두음법칙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낙방(落榜)	냥(兩)	냥중(兩-)	늑각(鹿角)
니스무소(里事務所)	양편(兩便)	여즈(女子)	열녀(烈女)
예도(禮度)	요소(尿素)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음치(廉恥)		

[불임] 모음과 /ㄴ/ 뒤에 오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제 13항 합성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낱말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ㄹ대 ㄹ님 ㄹ날[午日] ㄹ쉬 소남/소남

2. 다른 어휘 형태소 뒤에서 어휘 형태소의 초성 /ㄱ, ㄷ, ㅂ, 지/이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솔췌기	몹췌	동카름	보리크르
늑뿔팻	우영팻	조팻	
우녑칩	할망칩	식게칩	

3.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ㅂ’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췌췌	췌췌
----	----

제 14항 파생어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르방	하르바님	하리비/하르비
-----	------	---------

제 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깳[外]	:	바깳디	바깳디도	바깳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붙임]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ㅈ, ㅉ/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종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ㅈ, ㅉ’ 등으로 적는다.

낮이라도	낮이	낮을	낮도	낮만
앞이라도	앞이	앞을	앞도	앞만

제 16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간이나 어미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갈다[耕] :	갈았저	가난	갈지도	갈게	갈아도
걸다[步] :	걸었저	걸으난	걸을지도	걸게	걸어도
아프다[痛] :	아팠저	아프난	아플지도	아프게	아파도
올르다[登] :	올랐저	올르난	올를지도	올르게	올라도
조랍다[瞞] :	조라왔저	조라우난	조라울지도	조랍게	조라와도

제 17항 준 말

준말은 준 대로 적는다.

1. 형태소 내부

(본딧말)	(준말)
무엇	뫼/뫼/뫼/뫼
그것	그거/거
다섯	닷
기영/그영	경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혀여	헤
혀연	헨
좋은	존
혀엿저	헛저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가키어	가켜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보다는	보단
에서는/이서는	에선/에선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본딧말)	(준말)
어제즈낙	엇치낙/엇츄낙
저 아이	자이
그 아이	가이
이 아이	야이

제4장 굳어진 표기

제18항 /ㄷ/ 끝소리

본디부터 /ㄷ/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는 ‘ㅅ’으로 적는다.

덧(~니)	섯(~들)	숫(~구락)	스몯
웃(~웃)	쳇(~새끼)	헛(~일)	

제19항 한자 형태소

한자 형태소는 표준어와 같게 적는다.

1. 표준어의 /ㄴ/가 /ㄹ/로 소리 나는 것

영희(英姬) 의원(醫院) 합의(合意) 희미(稀微)

2. 표준어의 /ㄱ/가 /ㄷ/로 소리 나는 것

계획(計劃) 은혜(恩惠) 폐백(幣帛) 혼례(婚禮)

3. 표준어의 /ㄴ/가 /ㄱ/로 소리 나는 것

괴이(怪異)	외국(外國)	쇠약(衰弱)	죄(罪)
최(崔)	퇴비(堆肥)	회의(會議)	

제20항 합성어

고유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과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꿇벙 꿇주시 댛순 수돛물
웃드르 정짓냥/정젇냥 정짓문/정젇문

- [붙임] 자음 뒤에서 평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몸국 당가름 영도 알드르 톱밥

2. 모음과 /ㅣ/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꿇입 농숫일 바갓일/바갇일/배갇일 배갇잇 츠렛일

부 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실그다/실르다

풀/쿨 품/쿰 신짱/신착

므르다/몰르다[乾/裁]

첫째/첫채/첫차

굴쟁이/굴게/굴각지

재열/재/자/자리/젤/잘

숫구락/숫가락

-을걸/-으컬

-을디/-을티

-광/-강/-과/-가/-광/-깡 부터/부떠

2. 이 표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연구진

- 고재환 (전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송상조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위원)
김지홍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동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창명 (언어와 문자 연구소장)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영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현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 8

제주어 표기법

-
- 발행인 || 공영민
발행일 || 2013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편집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http://jst.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ISBN : 978-89-6010-360-3 93700

- 제주어 표기법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